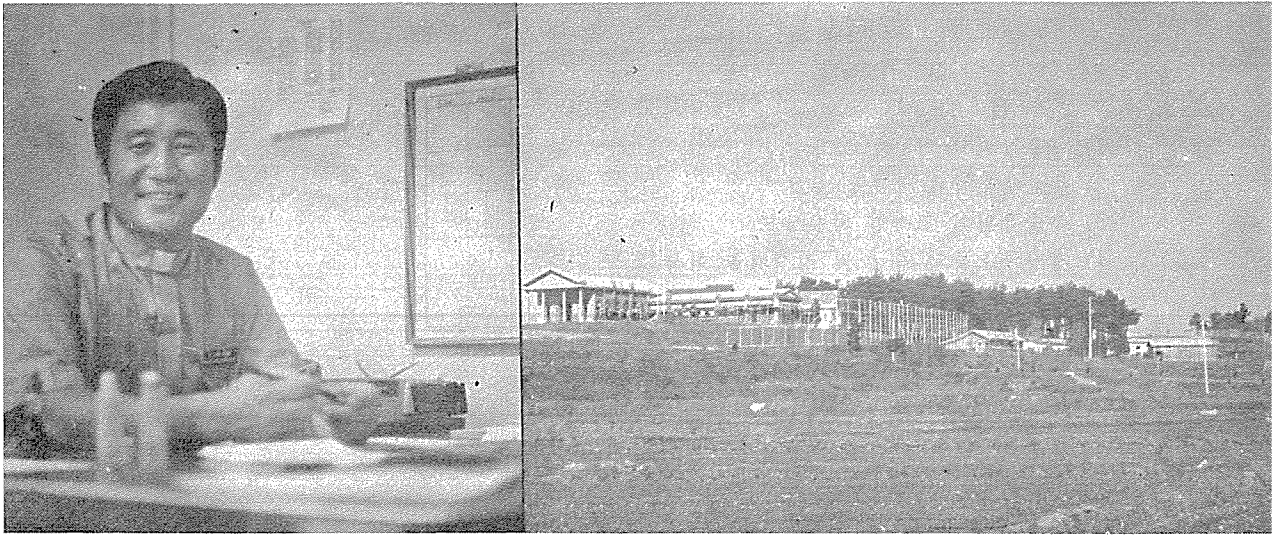


意志의 齒科人²¹ 朴宗三先生님



서울 치대 14회 졸업생이며 광주기독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중견치과의사가 이

룩해 놓은 광주 보이스 타운 건경, 서름과 굶주림속에서 시달리든 불우 소년들은 박종삼 선생의 의지로 지상의 천국이 이룩 되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할 많은 청소년들이 어느 누구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저 밑바닥의 그늘진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다.

밝은 사회를 싫어하며 어두운 세계를 활보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을 드나들며 사회에서 냉대받는 불우 청소년들 사회는 이들을 타하기 전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끝에 취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청소년 선도사업은 가장 어렵고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희생적인 봉사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감히 나서서 사람이 없어 가장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각박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속에서도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일깨워 주고,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 밝은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희망의 새싹을 심어준 희생의 봉사자가 있다.

그가 바로 전남 광산군 비아면에 「광주 보이스 타운」을 설립한 의지의 치과인 박종삼 박사다.

그는 치과의사(서울치대 14회졸)로서, 목사로서 또 사회사업가로서 불우 청소년들과 교락을 같이 하며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의지의 치과인이다.

(관련기사 95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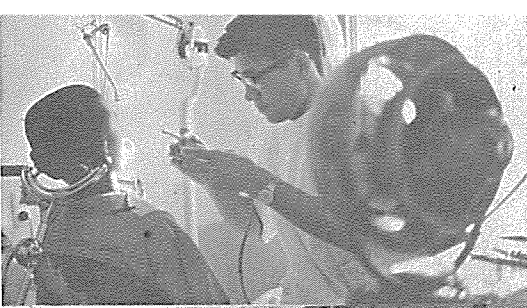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煥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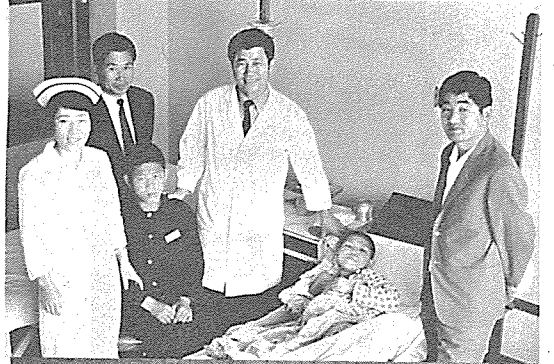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73) 0474 · (72) 9712

977 790



지금은 목사로서 또는 사회사업가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울 치대를 졸업(14회) 광주기독병원에서 인턴, 레지넨트를 이수한 중진 치과의사이다. 광주기독병원 재직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반면 구강건강관리의 계몽과 설교를 잊지 않았다.



보이스타운 설립 당시의 초라한 한 장면이다. 그러나 모—든 역경을 눈물로서 극복하는 의지의 일단이 엿보이기도 한다(上)

광주기독병원 재직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때 이미 보이스 타운을 설립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中)

보이스 타운을 유지 운용하려면 많은 독지가의 손길이 절실하다. 서울 치대 14회 동창들은 동기생인 박종삼 박사의 자랑스러운 이 사업을 적극 돕고 있다. 보이스타운 설립 당시 광주기독병원 치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설립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下)

研究와 精誠을 다하는

九井 舎金

Crown Bridge 用

Type "A" 黄白色

Type "B" 白色

地方連絡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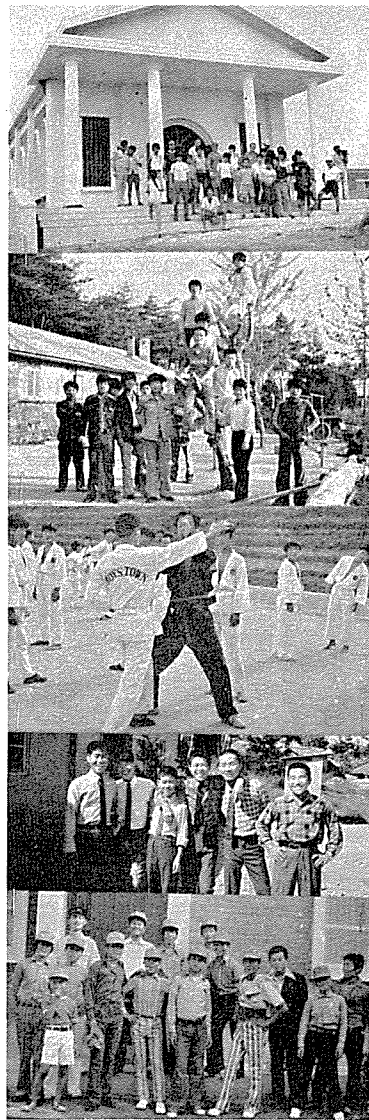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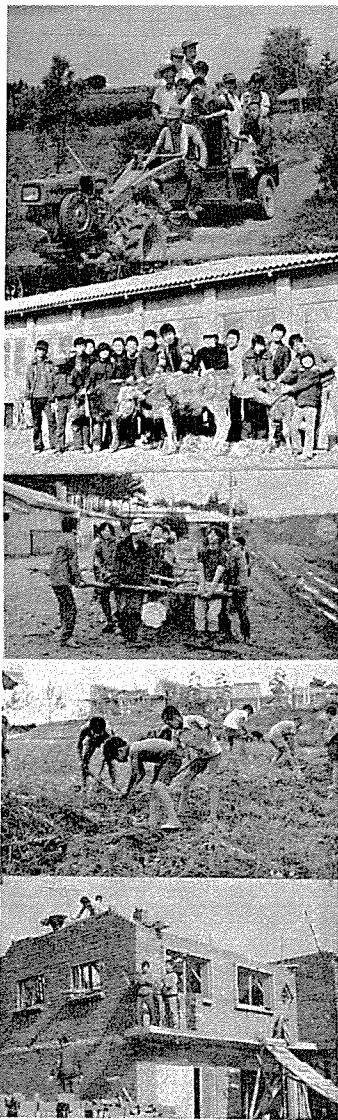
- 釜山……真金社 42-5528
- 大田……南山齒材 2-3106
- 仁川……仁川齒材 2-2967
- 全州……合信社 2-6644
- 春川……大興齒材 2-4405



眞 金 社

서울特別市 鍾路区 禮智洞 136-1

266-5575, 261-6759



모든것을 우리손으로,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보람이요 또 지상과제이다. 영농, 축산, 건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손으로 이룩되었다. 치과의사 박종삼 박사는 꿈의 동산을 이룩해야겠다는 의지가 결실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24시간 동분서주 하고 있다.

마침내 꿈의 동산은 이룩되었다. 피와 땀의 결

정인 종합관도 마련되었다. 이제 아무 꺼리낌없이 보이스트타운은 생동적이요, 희망적이다. 이곳에서 배출된 중, 고 대학생, 그리고 기능공 이것은 보이스트타운의 재산목록 제 1호이다. 한 치과의사의 의지로 이룩된 오늘의 보이스트타운은 전체 치과의사의 자랑이기도하다. 그러나 어려움은 아직도 많다. 의지의 나라를 마음껏 펼 수 있는 전체 치과인의 손길이 아쉽다.

(호제동 62의 3호(종로 5가)로 이전 성업중입니다.)



서울치과기공소

SEOUL DENTAL LABORATORY

서울종로구호제동 62의 3

☎ (261) 0370 · (260) 4206

代表 徐基完